

6주차 회의록

중간 발표를 위한 발표자료에 힘을 쓰고 있는 와중에 중간 발표 전에 멘토님과 중간 점검을 할 겸, 미리 멘토님한테 저희의 발표자료와 발표 내용을 시연하였다.

내용 자체의 문제점은 없어 보였는데, 자료를 처음 만들어본 우리는 내용 흐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아 보였다. 기획 담당이신 멘토님은 저희의 문제점이 배경에 있다고 하셨다. 유튜브 api를 써야 할 이유와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청자들에게 납득이 갈 만하게 설명을 해야하는데, 많은 내용을 넣으려하고 최대한 청자들에게 지루하지 않게끔 짧게 만들려 하다보니 내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멘토님과 머리를 싸매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제도 폐지 내용으로 시작하여 왜 유튜브 api를 써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자고 얘기하였다.

두번째로는, 구독자가 많은 채널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발표자료에 표기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하였고, 추진일정에서 보통 일반 회사 제안발표에서는 정확한 날짜에 대한 일정을 명시하여 신뢰감을 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최종발표가 5월 28일인데, 그 일주일 전인 5월 21일 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최종 마무리와 자잘한 오류 등을 손보는 시간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내용을 많이 집어넣고 그로 인해 목차의 내용이 많아지기도 하고 내용의 순서도 멘토님이 보셨을 때는 부자연스러워 보이셨던 것 같다. 그래서 발표 순서와 목차 부분에 대해 변화가 있었다.

발표자 유지석님에 대한 피드백도 이루어졌다. 첫째로, 한 슬라이드에 대한 발표 내용이 너무 빨라서 청자로 하여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말을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중간에 브레이브걸스와 미나리에 대한 사진을 넣고 교수님께 무엇인지 여쭙보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과감하게 빼달라고 요청했다. 대신에 내용에 힘을 줄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주고 힘을 빼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빼달라고 요청했다.

발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수님께서도 내용과 흐름이 잘 들어온다고 칭찬하셨고,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거나 어떤 기술을 추가하면 더욱 완성도가 있는 결과물이 될 것 같다고 하셨다. 다만 이미 우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차별점과 보완점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7주차 회의록

- 캡스톤 지원비 관련 논의

16일까지 캡스톤 지원비 신청. 이에 따라 신청할지 논의.

➔ 회의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딱히 필요 물품이 없어 신청하지 않기로 협의

- 중간 발표 결과 논의

생각보다 발표를 무사히 끝냄. 교수님 피드백을 통해 프로젝트 기획 수정이 필요함.

- 중간고사 논의

팀원 모두 중간고사가 바빠 두 학생 모두 시험이 끝나고 제대로 이야기하기로 협의.

이에 따라 이번주 작업사항과 논의 사항이 많지 않음. 시험이 끝나느 23일 프로젝트에 대한 재논의 하기로 결정

그래서 이번 주는 빠르게 회의 종료